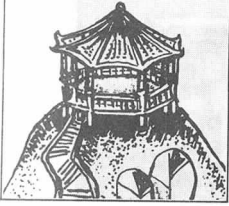


八角亭



# 자연과 같이 살기를 굳게 다짐하며

— '93 全國自然公園大會 參加記 —

김영권

푸른하늘! 푸른산천! 푸른바다! 를 대회지표로 삼고, “자연사랑 가족처럼”이란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공원 애호사상 고취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93 전국자연공원대회」는 많은 회원과 공원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93년 9월 3, 4일 이틀간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에서 우리 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해마다 실시해온 “자연공원 세미나”행사와와는 달리 「자연탐방」, 「사생대회」, 「민속놀이」, 「캠프화이어」등 다채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흥미를 북돋았고, 적색모자, 녹색스카프 등 몸단장으로 대회 분위기를 새롭게 변모 시켰다.

첫날 찌푸린 날씨가 아니고, 햇살이 따사로운 전형적인 가을날씨 였더라면 초원을 배경으로한 개회식 행사나, 그림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자연과 조화된 모습들이 진정 한폭의 그림처럼 보였을 것을……. 날씨가 무척 원망스러웠다.

자연탐방 시간에는 1,000고지 가파른 산정을 오르고, 다시 걸어 내려오면서 공해없는 대자연의 짜릿한 신선함을 맛보기도 했다.

공해없는 대자연! 우리가 지향하는 푸른 지구의 모습! …밤에 별을 헤아릴 수 없고, 해와 달의 제모습을 보지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깨끗한 자연보다 더 좋은게 있을까! ……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이 늘어나 산성비가 내리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른것이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면서, 인간위주의 생각으로 인간의 편리,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 하니 숙연해질 수 밖에 없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행방불명 되면서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가속화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어쩌면 봄날 노고지리 소리도 가을 밤 풀벌레 소리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지 모른다. 삭막한 세상, 인간이라고 온전할 수 있겠는가. 상상만 해도 가뭄할 일이다. 산을 내려오며 싱그러운 풀내음을 맡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끝내 스산스러웠다.

어둠이 깃들고, 밤이 찾아와도 찌푸린 날씨는 풀릴줄 몰랐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인 것이다. 애써 준비한 캠프화이어, 전통민속놀이 등이 좀더 흥겹게 진행될 수 있었으련만……. 그런중에도 사물놀이와 캠프화이어는 우리들을 한마음으로 묶는데 펍 감동적인 구실을 하고도 남았다.

둘째날은 청명했다. 오전 일정은 「자연공원 세미나」였다. 「자연과 같이 살자」라는 기초강연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면서 자연과 조화되어 자연과 공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과제란 것을 알았다.

자연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이 살도록 해주는 것이 곧 자연보호이고 인간의 쾌적하고 질높은 삶은 소위 문명의 이기라



대회에 참가했던 오대산지부회원들 -귀로에 “라제통문”에서

고 이름하는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호된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공생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와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리라. 다만 코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실천하지 않았을 뿐.

지금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공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개발 운운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좋은 자원을 그대로 두는것은 방치라고 주장하면서 공원을 경제개발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 운영권을 놓고 중앙부처와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국립공원은 지역개발과, 지역소득증대 수단이나, 관광자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생존의 씨앗으로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으로 가꾸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실태는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유원지로 조성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개발의 방향도 그들을 유치하고 더 확대 하려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다.

막아야 할 일이다.

관계부처에서 국립공원을 자연보존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정책의 재정립 방향을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데 두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바라고 싶은건 보존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다.

「자연은 자연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국립공원협회가 조사, 연구, 홍보 분야에서 공원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활동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육성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니 회원의 한사람으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와같은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이 설정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의식개혁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할 일이다. 실천으로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리라. 우리지부도 내년 대회엔 틀림없이 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게 되겠지!

덕유산을 떠나오는 발길은 그런 기대에 차 있었다.

[본회회원 · 오대산 서부지부]